

국가 정보화지표, 한국 연평균 33.05%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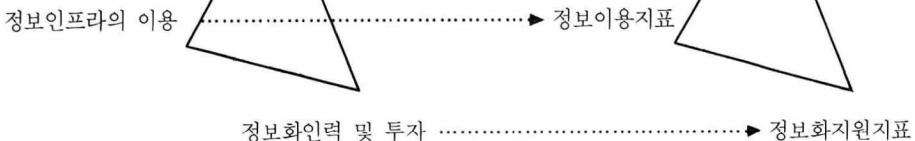
이글은 한국전산원이 지난 5월 발간한 『'96년도 국가정보화백서』에 수록된 내용이다. <편집자 주>

정보화의 구조 및 측정지표

정보화의 구조

정보화수준의 측정지표

정보인프라의 보급 ► 정보설비지표



정보화인력 및 투자 ► 정보화지원지표

한국전산원이 발표한 '96년도 국가정보화백서에 의하면 정보화를 <그림>에서와 같이 정보인프라의 보급, 정보인프라의 이용, 그리고 정보통신과 관련된 인력 및 투자활동의 세가지 측면에서 정보화수준을 측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정보화수준을 다른나라와 비교하여본 결과, '90년의 경우 미국이 한국의 약 9.3배, 유럽선진국들은 7.8배, 일본이 4.5배, 싱가폴이 7.3배, 대만이 1.9배의 수준에 있었으나, '94년에 이르러서는 미국이 한국의 8.3배, 유럽선진국들은 5.5배, 일본이 3.6배, 싱가폴이 4.3배, 대만이

1.1배의 수준으로 격차가 많이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국가의 차원의 정보화 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정보화수준이 연평균 약 3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정보인프라의 이용측면에서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보화수준을 좀더 상세하게 비교하기 위해 부문별로 국가간 비교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통신 인프라의 보급정도를 나태내주는 정보설비지표경우 '90년 미국이 한국의 3.6배, 유럽선진국들은 3.3배, 일본이 6.2배, 싱가폴이 5.8배, 대

〈표 1〉 국가간 정보화 지수 (한국 '90=100)

국 가	1990	1994	연평균 성장율
한 국	100	377	33.05%
미 국	930	3,125	29.31%
영 국	617	1,695	21.61%
독 일	498	2,282	35.83%
프 랑 스	1,216	2,229	15.36%
일 본	446	1,361	27.24%
대 만	186	423	19.09%
싱 가 폴	733	1,617	19.30%
홍 콩	845	1,591	17.95%
말 레 이 지 아	74	176	19.98%
유 럽 선 진 국 평 균	777	2,069	22.40%

〈표 2〉 주요 국가간 정보설비지표

(한국 '90=100)

국 가	1990	1994	연평균 성장율
한 국	100	231	20.55%
미 국	366	1,484	31.74%
일 본	617	2,666	40.29%
대 만	118	159	8.64%
싱 가 폴	578	1,173	21.95%
유 럽 선 진 국 평 균	331	2,634	53.96%

만이 1.2배의 수준에 있었으나, '94년에 이르러서는 미국이 6.4배, 유럽선진국들이 11.4배, 일본이 11.5배, 싱가폴이 5배, 대만이 0.7배의 수준으로 이 부문에 있어서 대만을 제외하고는 다른나라와 정보화 수준의 격차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정보설비중 네트워크 부문에 있어 대만을 제외한 다른나라보다 성장이 미약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으며 우리나라도 '94년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구축사업에 힘입

어 이 부문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표 3〉 주요 국가간 정보이용지표

(한국 '90=100)

국 가	1990	1994	연평균 성장율
한 국	100	750	56.59%
미 국	1,679	7,122	38.95%
일 본	330	958	26.15%
대 만	253	853	28.49%
싱 가 폴	1,295	3,238	20.54%
유 럽 선 진 국 평 균	1,403	2,961	18.45%

정보통신설비 및 서비스의 활용정도를 나타내주는 정보이용지표의 경우 '90년 미국이 한국의 16.8배, 유럽선진국들이 1.4배, 일본이 3.3배, 싱가폴이 1.3배, 대만이 2.5배의 수준으로 다른나라에 비해 많이 뒤쳐졌었으나, '94년에 이르러서는 미국이 5배, 유럽선진국들이 3.9배, 일본이 1.3배, 싱가폴이 4.3배, 대만이 1.1배의 수준으로 다른나라들과의 격차를 현격히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 있어 인터넷, 개인휴대전화, 무선헬스 서비스 등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 새로이 개시된 서비스항목에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은 약 85%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며 성장했기 때문에 조사되었다.

정보통신과 관련된 인력과 투자수준을 측정한 정보화지원지표의 결과에 따르면 '90년의 경우 미국은 한국의 7.5배, 유럽선진국들이 6배, 일본이 3.9배, 싱가폴이 3.3배, 대만이 1.9배 정도의 수준에 있었다. 그러나 '94년에 이르러서는 미국이 5.2배, 유럽선진국들이 4.1배, 일본이 3.1배, 싱가폴이 2.9배, 대만이 1.7배의 수준으로 이 부문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는 연평균 11.6%의 높은 증가율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으며 다른나라와의 수준 격차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